

열정과 세월로 빛은 자부심...우리술 韓酒 예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우리술 한주 기행

백용재 지음

“한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이런 청주, 탁주, 막걸리의 분류는 모두 옛날 가양주(家釀酒)를 빛낸 식으로 한 독에서 나온 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근래에 생산되는 술들은 청주면 청주, 탁주면 탁주, 막걸리면 막걸리 이렇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한가지만 생산한다. 한 독에서 차례로 걸러지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나름의 귀천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다. 저도주가 트렌드라보니 연구개발을 열심히 해서 일부 탁주나 증류주가 아닌 막걸리를 만드는 곳도 많다(값싼 수입산 재료와 화학물질로 만든 청주도 있고 좋은 국산 쌀만 골라 정성껏 빚은 탁주나 막걸리도 있으니 막걸리라고 무조건 무시하면 안된다).”



전통주를 한주(韓酒)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국 술’이다.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한국의 술이니 한주(韓酒)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주류 분야 파워블로거로 선정됐던, 한주 산업의 세계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백용재 작가가 최근 ‘우리 술 한주 기행’을 펴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한주의 세계가 펼쳐진다.

물론 한주를 전통주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녹색병 소주, 국산 와인, 그밖에 어떤 술이든 국내에서 생산되는 술이면” 다 ‘한국 술’인 셈이다. 저자는 한주(韓酒)를 마시다가 문명이 바뀌는 기미를 읽고 직접 한주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

코로나19로 혼술과 홈술이 유행하면서 전통주 인기도 상승했다. 온라인 주문이 가능해진 덕분에 한국 술은 르네상스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저자는 한주(韓酒)의 대체어로 전통주를 제안한다. 여기에 일반인에게 친숙한 기행을 첨가해 한주와 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저자는 강진을 비롯해 흥천, 충주, 문경, 남해, 부산 등 양조장 스무여 곳을 소개한다. 직접 한주 관련 일에 종사했던 터라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묻어난다. 마치 호모가 술맛을 좌우하듯 경험에서 빚어진 이야기는 생생한 현장감과 맛깔스러움을 더한다.

강진의 병영양조는 프리미엄화를 단계 별로 진행해왔다. 이곳에서는 ‘병영설성생막걸리’, 유기농 쌀막걸리인 ‘설성만원’, 북분자 소주인 ‘병영설성사또’, 보리소주인 ‘병영소주’ 등을 만든다.

저자는 병영양조의 김견식 명인에 대해 “겸손한 태도 속에서도 어디서든 뒤지지 않는다는 탄탄한 자부심”이 풍기는 인상이라고 전한다. 그가 시골에서 유기농 쌀막걸리나 증류 소주를 만드는 것은 시장성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그의 눈에는 그것이 우리 술이 나아가갈 길이며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었다. 김견식 명인이 여기까지 온 것은 상업적 고려 이상의 열정, 멀리 오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강원도 흥천을 한주의 수도라고 한다. 프리미엄 한주 양조장이 몰려 있다. 아마도 그것은 “산 좋고 물 좋은 자연환경과도 무관하지 않고, 수도권과 가까운” 면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귀농귀촌의 특구이며 “수도권과의 거리-시간-편가를 계산해보면 가성비 가장 극대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흥천읍에 있는 미담양조장은 다채로운 술을 빚는다. 연엽주, 송화주, 홍시주, 알밤주, 감자술 등 다양하다. 이곳 주인장은 “오미(五味)가 다 있고 향이 화려한 술”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쓸쓸한 가을 저녁의 석양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상상한다.



코로나19로 혼술, 홈술이 유행하면서 전통주(韓酒)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술에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독특한 맛의 세계가 깃들여 있다. <정비 제공>



대도시 양조장의 메카로 부산을 꼽는다. 동동주 원형에 가까운 막걸리인 ‘갈매기의 꿈’, 부산의 랜드마크인 오륙도와 5.6도의 도수를 맞춘 ‘오륙도 막걸리’를 소개하고 만나러 가는 길을 ‘술로로드’라고 명한다.

저자는 “한잔 한잔 소비해버리는 전통이 아닌, 만들어가는 전통을 함께하다보면 독

자 여러분도 나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사람들 중 한명이 될 것”이라며 한주를 예찬한다. <정비·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복자에게

김금희 지음

“복자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온통 물러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것이 힘을 쓰고 싶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김금희 작가의 ‘복자에게’는 잔잔한 위로를 준다. 비록 어떤 일에 실패했을 지라도 삶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설은 1999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3세인 초등생 이영초롱이 남동생 대신 고모에게 맡겨지면서 시작된다. 고모는 제주 본섬에서도 한번 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고고리섬’에서 산다. 이영초롱은 자신이 서울에 남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적은 제안서까지 써서 부모에게 호소하지만 절망적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고고리섬에서 며칠을 보내다 이영초롱은 어느 날 또래 여자아이 ‘복자’와 마주친다. 당차고 씩씩한 복자는 섬에 들어왔으면 할말신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할말당으로 안내한다.

이번 소설에서도 작가는 무심한 듯 다정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장면을 다채롭게 그려낸다. 그동안 평단의 지지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2015년 신동엽문학상, 2016년 젊은작가상 대상, 2017년 현대문학상, 2020년 김승옥문학상 대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받을 만큼 인정 받는 작가다.

이번 장편 ‘복자에게’ 또한 그렇게 두 초등생 만남을 통해 전개된다. 시간이 흘러 이영초롱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지만, 법의 엄정한 언어가 개개인의 세세하고 애달픈 사연을 평면화해 버린다는 사실에 회의를 느낀다. 제주 법원으로 징계성 발령을 받은 이영초롱은, 어느 날 유년의 장소에서 복자와 재회하게 된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복자는 거대한 불합리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중이다. <문학동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별망의 정원

쓰네카와 고타로 지음, 이규원 옮김

“한 남자가 보는 꿈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 어느 날 낯선 세상에서 눈을 뜨며 일상의 작은 불행들에서 벗어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별망의 정원’이 출간됐다.

책은 현실과 비현실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관을 그려내는 작가 쓰네카와 고타로의 3년 만의 신작으로 그의 첫 디스토피아 장편소설이다.

‘별망의 정원’은 올해 가장 재미있는 소설에 상을 주는 제9회 아마다 후타로상에 후보에 오르며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들며 깊은 감동을 주는 전례 없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친구의 따돌림, 상사의 갑질, 아내의 외도 등 현실에 치여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던 스즈카미 세이치는 전자에서 낯선 여인에게 사랑을 느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녀를 따라 이름 모를 역에 내린다. 난생처음 와보는 그림책 같은 세상. 무엇이든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고 처음 만난 사람도 바로 친구가 되어주는 이곳에서 세이치는 점차 자신이 떠난 곳을 잊고 새로운 삶에 젖어든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어느날 편지 한장이 날아든다. 세이치의가 살고 있는 이계의 영향으로 현실 세계가 별망의 위기에 처했으니 구해달라는 것. 현실 세계는 갑자기 나타난 ‘미지의 존재’로 인해 중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과연 세이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현실과 이계, 질서와 혼란, 개인과 공동체라는 명제 아래서 한 남자의 선택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는지, 그 결말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를 비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한다. <고요한숨·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두 번째 산

데이비드 브룩스 지음, 이경식 옮김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기는 찾아온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은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에 맞닥뜨리면 과도하게 움츠러들고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여 노력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을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 사람들의 인생은 가장 큰 역경의 순간에 자기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규정된다.

고통의 시기를 통해 인생의 태도를 다시 정립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두 번째 산’이 출간됐다. ‘인간의 품격’, ‘소셜 애니멀’ 등을 쓴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 책에서 삶의 고통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익히려는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두 개의 산’, ‘직업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철학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지금이 개인의 행복,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넘어 도덕적 기쁨, 상호 의존성, 관계성을 회복할 때라고 주장한다. 지난 60년간 앞의 가치들을 강조해 온 결과,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들 사이의 결속은 끊어지며 외로움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훨씬 더 큰 자원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화적 패러다임의 무게 중심이 개인주의라는 첫 번째 산에서 관계주의라는 두 번째 산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첫 번째 산이 자아(ego)를 세우고 자기(self)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고 전한다. <부키·2만2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